

性理學 倫理思想의 現代的 意義

高 麗 大
尹 絲 淳

一. 머 리 말

性理學 倫理思想의 現代的 意義는 本 大會에서 의도하는 韓國性理學에 대한 이해의 結論에 해당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性理學의 導入과 그 展開의 理解를 전제한 評價의 問題이기 때문이다. 評價인 점에서 이것은 또한 傳統思想의 繼承의 問題이기도 하다.

傳統思想 繼承의 視角이 존립할 때, 우리의 경우 性理學은 결코 度外視될 수 없다. 그 이유는 性理學이 傳統思想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있다. 性理學은 과거 500여년간 조선조의 統治理念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활방식을 좋던 싫던 여러가지 형태로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방식에 대한 엄정한 省察의 눈을 뜰 때에는, 다른 傳統思想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식이 특히 性理學의 倫理思想에 집중되면, 그에 대한 정확한 理解의 必要性은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他思想에 대비하여 성리학의 가장 큰 長點으로 말해지는 것이 바로 倫理思想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그 발흥 이후 항상 老·佛의 倫理意識의 박약성을 주요 「타겟」으로하여 그 사상들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老·佛에 비하여 성리학의 倫理思想이 강하고 풍부하다.

이것은 성리학 이전의 다른 儒學과 비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리학의 倫理思想이 先奏儒學을 비롯한 다른 儒學의 그것보다 훨씬 풍부하다. 그점은 「三綱·五倫」등의 倫理綱領에 대한 태도 만으로도 알 수 있다. 다른 儒學들은 대체로 三綱·五倫의 강령을 단순히 信奉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아니면, 그 근거에 대한 理論追求意識이 있다고 해도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성리학은 老·佛의 形而上學的 영향으로 인하여, 三綱·五倫의 信奉 뿐 아니라 그에 대한 合理化的 形而上學까지 보다 철저히 마련함으로써 그 근거에 대한 理論追求意識이 매우 강하다. 韓國性理學 역시 성리학 일반이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일단 지니고 成立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상의 고찰만으로도 그 倫理思想과 意義에 대한 理解의 重要性은 충분히 짐작된다.

문제는 이것이 성리학 일반의 경우도 아니고 중국성리학이나 일본성리학도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것은 性理學 一般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성리학이 지닌 特殊性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하므로 그 難解度가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마땅히 한국성리학에 대한 역사적 接近과 아울러 比較思想的 接近法을 구사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한국성리학에 대한 이러한 接近은 바로 한국성리학의 導入과 展開부분의 研究를 담당한 분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行하여질 課題이지 論者의 과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論者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국성리학의 特殊性에 대한 知識만을 토대로 主題에 임하고자 한다.

現代的 意義를 캐는 작업 역시 간단하지 않다. 작업은 우선 現代를 어떻게 把握하느냐에 따라 그 解答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現代에 대한 일정한 見解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意義把握이 일종의 主觀的인 評價作業의 성질을 띠는 것인만큼 千篇一律의 單答만을 이끌어 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本稿 역시 하나의 主觀的 偏見의 술회에 불과함을 미리 고백해 두고자 한다.

二. 性理學의 倫理思想

性理學이 老佛克服의 의지에서 本原儒學을 再構成함으로써 이루어진 新儒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本原儒學과 근본적으로 質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本原儒學을 일단 繼承하는 同質的 側面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 本原儒學을 벗어나는 相異한 측면을 가진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三綱五倫등의 倫理綱領을 일단 답습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그 合理化를 위한 形而上學을 보다 더 많이 마련하는 사실이 그 한 증거이다.

원래 儒學倫理의 根本原理는 五倫의 原理와 五常의 原理로 말하여진다. 즉 親·義·別·序·信과 仁·義·禮·智·信으로 말하여진다. 그러나 이 兩者는 서로 같은 것이다. 五常은 곧 五倫의 원리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原理들 중에 「親」내지「仁」이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仁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른 원리를 다 포섭한다고 간주된다. 이런 意味에서 仁은 儒學倫理思想의 핵심이 되는 根本原理이다. 따라서 성리학적 윤리사상의 특징은 바로 이 仁에 대한 性理學的 思考의 특징 가운데서 단적으로 把握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仁에 대한 性理學的 思考가 本原儒學的 思考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서 把握된다

孔子에 의하면 仁이란 「克己 復禮」할 때에 이루어진다. 利己의인 本能的 欲求를 벗어나 合禮의인 行爲를 지향하는 조건이 仁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利己의인 本能的 欲求를 벗어나는 克己는 곧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己所不欲 勿施於人)」이른바 「怒」의 方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怒의 方法을 구사하는 점에서 仁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愛人」이라 풀이된다. 愛人이라는 전제가 仁에 대한 孔子의 代表的 說明이다.

그런 까닭에 孔子의 思想을 계승한 孟子는 仁을 「惻隱之心」으로 드러나는 本性이라 간주했고, 韓愈는 「博愛」라고 이해했다. 孟子가 든 「孺子入井」의 예는 바로 이러한 仁의 本具性에 대한 證明인 것이다. 사실 「仁」의 字形을 보더라도 二人(人人)으로 되었다. 字形의 의미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련 및 그 관련에서 느끼게 되는 그 무엇을 암시한다. 이렇게 살피면 本原儒學에서 생각되어진 仁이란 惻隱之信같은 情調를 매개로 하여 人間關係를 원할하게 하는 倫理的 原理라 하겠다.

따라서 本原儒學에서의 仁은 어디까지나 「社會的 次元」에서 고려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仁의 구체적 實現이 「孝悌」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되는 것으로 보면, 仁을 근거로한 그 倫理思想에 「家族倫理의 色彩」가 농후함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仁 實現의 범위를 四海로 잡아, 그 情調의 擴充을 역설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性理學에서는 이러한 本原儒學의 仁을 중심으로한 倫理思想을 일단 시인하고 包括的으로 繼承한다. 그 包括的인 계승속에서 仁을 사실

상 전과 달리 이해한다. 성리학자들은 仁을 社會의 次元에서는 물론, 宇宙의 次元에서까지 이해하려 한다. 예를들면, 程明道는 仁을 「生意」(萬物之生意)로 把握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萬物과 一體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仁이라 한다. 이것은 다분히 生哲學의 立場에서 物我一體의 「天人合一」의 理想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즉 이것은 「易經」에서 원래 宇宙의 特性(天地之德)을 「生命」(生)으로 把握하였음을 감안하여, 그러한 宇宙 自然과 人間은 다같이 生命이라는 점에서 서로 合一될 수 있다는 發想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仁(生意)은 인간과 自然을 合一시키는 媒介의 原理로 想定된 것이다.

한편 程伊川이나 朱晦庵에 오면, 「性」과 「理」가 서로 같다(性即理)는 가설이 제창되면서, 合一의 대상인 天은 自然으로서의 物(萬物)이 아닌 「天理」내지 「理」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天人合一의 궤도는 禁欲(去人欲)의인 修養에 의해 心性속에서 발견되는 「天理에의 歸一」(存天理)이라는 식으로 변질된다. 원래 性を 理와 같다고 보는 思考는 「人性」을 「物理」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人性에 대한 일종의 宇宙論내지 存在論의 解釋方式이다. 그러므로 이 思考에 의하면, 「易經」의 「太極」을 비롯하여 「中庸」의 「中」, 「天命」, 「性」, 「道」가 다같이 수 밖에 없다. 仁과 같은 本性(本然之性)은 心속의 本具理인 동시에 個體마다에 있는 太極(物各有一太極)과도 內容上 서로 같다. 이런 의미에서 程朱는 仁을 가리켜 「愛之理」인 동시에 「生之性」이라 한다.

이 경우 五倫의 禮說 또는 道德說의 근거는 仁을 특히 「愛之理」로 보는 데서 마련된다. 즉 當爲로서의 「愛의 理」를 자연적인 「愛의 性」과 同一視함으로써, 當爲와 存在를 一致視하는 思考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思考의 연원은 이미 本原儒學에서부터 비

못된 것이다. 「中庸」의 「率性之謂道」가 그 한 예이고, 「孟子」의 「四端」특히 「孺子入井」(惻隱之心の 발로)에 관한 이론도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本原儒學에서는 이러한 思考의 원형을 제시한 데 그쳤을 뿐 그 이상의 理論展開를 보이지 않았다. 이 思考를 理氣論적으로 展開하여 五倫의 倫理說을 더욱 풍부이 한것은 역시 性理學이다. 성리학 중에서도 程朱의 성리학이야말로 五倫의 必然性에 관한 形而上學을 보다 철저히 준비한 儒學이라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程朱의 성리학이 오직 理論追求의 倫理說에 그쳤다는 것은 아니다. 程朱의 성리학에는 修己의 實踐追求의 측면, 이른바 「道學」의 요소 역시 풍부하다. 원래 「窮理」와 더불어 「居敬」의 중요성을 깨닫고 「知行並進」을 理想視한 程朱였고, 存心 養性에 입각한 「修己」가 곧 性理學이 지향하는 「爲己之學」의 성격임을 깨달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三. 韓國性理學의 倫理的 特徵

우선 한국 성리학의 歴史的 흐름에 대한 概括的 考察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성리학의 倫理的 特徵을 把握하는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다. 巨視的인 안목으로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性理學의 흐름은 대체로 1세기 정도를 한 단위로하여 變化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즉 13세기=導入・受容, 14세기=官學化:研究의 本格化, 15세기=道學의發展, 16세기=四七論의 理論世界의 展開, 17세기=禮學・禮訟的 現實對應, 18세기=人物性論的 理論世界의 深化, 19세기=衛正斥邪의 國權鞏固化가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理解가 可能하다면, 이것은 다시 倫理思想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한국성리학은 13, 14 세기에 성리학 倫理思想에 대한 學習의 단계를, 15 세기에 그 實踐精神의 體質化 단계를, 16 세기에 그 獨自의 理論의 創出 단계를, 17 세기에 그 敎條的 因襲化의 단계를, 18 세기에 그 墨守의 強化論의 深化단계를, 19 세기에 그 實踐性的 限界露呈(超倫理化)의 단계를 누비는 것이었다. 따라서 15 세기의 道學, 17 세기의 禮學·禮訟, 19 세기의 衛正斥邪運動은 한국성리학이 지닌 倫理思想의 獨特한 實踐的側面인 반면, 16 세기의 四七論과 18 세기의 人物性論은 그 獨特한 理論的側面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국성리학의 倫理的 特徵은 곧 이 두 측면의 고찰에서 찾아질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과 같은 한국성리학 흐름의 主調를 이루는 것이 程朱系의 성리학이므로 그 倫理的 特徵 역시 사실상 程朱系 性理學의 特徵의 범주안에서 찾아지는 셈이라는 점이다.

15 세기의 道學이란 寒暄堂 金宏弼의 小學的 修己와 靜庵 趙光祖의 至治(王道)的 改革으로 대표된다. 그것은 곧 士林派 學者들이 士禍속에서 목숨을 걸고 추구한 義理實踐思想이다. 원래 道學 자체가 本原儒學의 「한 순간(須臾)도 道義를 떠나 生活할 수 없다」(中庸)는 道義重視 意識과 「아침에 道를 깨우치면 그 저녁에 죽어도 좋다」(論語)는 孔子의 主體的 眞理의 追求精神을 계승한 「爲己之學」 표방의 實踐的 性理學이다. 그러므로 道學志向의 의지가 강할 수록 性理學은 「修己」로부터 「治人」에 이르기까지 倫理的 義理를 일관하여 구현하고자 하게 된다. 15 세기의 道學의 움직임은 이러

한 思考의 맥락에서 형성 흥기한 것이다. 그것은 특히 吉再를 통한 高麗的 節義와 生六臣 死六臣등 鮮初의 節義를 토양으로 하고 성숙된 까닭에, 그 義理實現의 강도가 다른 나라에서 類例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두드러진 것이 특이하다. 그 단적인 證例가 金宏弼의 小學的 義理實踐과 趙光祖의 至治의 義理實現이다. 이렇게 두드러진 15 세기의 道學精神으로 해서 이후의 한국성리학은 義理實現의 道學的 基準에서 人間의 됃됨(小人, 君子)을 평가하게 되고, 나아가 이 基準에서 性理學의 正統을 가름하는 道統觀이 確立되었다. 따라서 한국성리학의 道學的 正統化는 바로 修己로부터 治人에 까지 걸쳐 투철히 부식된 倫理義識을 의미하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17 세기의 禮學및 禮訟이란 寒岡 鄭述, 沙溪 金長生, 玄石 朴世采등의 禮說 정리와 白湖 尹鏼, 尤庵 宋時烈등이 服喪問題를 위주로 전개한 黨爭을 일컫는다. 禮學과 禮訟이 이 경우처럼 심각하고 치열하게 전개된 類例도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흔하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이 禮學의 연원은 圃隱 鄭夢周에 의해 두드러지게 강조된 「朱子家禮」의 실천이라든가, 陽村 權近의 「禮記淺見錄」의 저술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캐고 보면 이것은 主知主義의 특성이 짙은 程朱系 性理學 특히 상술한 道學精神의 必然的 結果이다. 왜 나하면 禮意識 역시 義理의 정당여부(是非)를 따지는 名分論的 思考에서 可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服喪위주의 黨爭인 禮訟이란 바로 性理學의 倫理意識으로서의 名分論的 思考가 정치현실에 적용된 일종의 合理的(形式主義的)생활양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단

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可變的 탄력성을 잃고 敎條的으로 因襲化하는데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19세기 즉 朝鮮朝 末葉의 「衛正斥邪」運動은 華西 李恒老, 重庵 金平默 및 慮沙 奇正鎭등이 西洋과 日本 帝國主義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일으킨 救國運動이다. 이때의 「正」과 「邪」는 각각 政治上으로는 韓國과 위협적인 外邦(西洋 및 日本)을 의미하지만, 學問上으로는 性理學과 西學을 가리킨다. 특히 倫理上으로는 이것들은 각각 性理學的 義理(春秋大義)와 基督敎의 生活樣式을 의미한다. 西學 및 帝國主義勢力에 접하고 性理學界에서 이같은 反應(斥邪衛正)이 일어난 까닭은 역시 性理學이 그동안 朝鮮朝의 統治理念 즉 官學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國家의 危難期에 처하여 官學的인 倫理意識이 그 當爲(所當然)의 標의로서 「忠」을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한데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數世紀前부터 성숙한 道學精神의 계승 발로 현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높은 價値의 實現을 위해 自己 犧牲까지 서슴치 않는 점에서 이것은 일단 倫理意識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다만, 政治現實과 연결된 문제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편 그 倫理意識이 일종의 實踐的 限界點에 이르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살피면 朝鮮朝의 역사는 실로 性理學的 倫理의 實踐史라고 하여 무방할 정도이다. 朝鮮朝의 역사는 그만큼 性理學的 實踐倫理가 충실히 구현된 사실의 연속이다.

그러면 조선조 특유의 性理學 理論世界 즉 16, 18세기에 크게 浮上한 四七論과 人物性論의 문제로 시선을 옮기기로 한다. 이

문제들의 端初는 물론 朱晦庵의 思想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晦庵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論究의 폭과 길이에 있어 큰 差가 있다. 그 差異는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진 論究를 그대로 우리의 性理學이라 하여 무방하게 한다. 이 두 문제의 論辯이 다같이 한국 특유의 學派 즉 退栗學派, 湖洛派 또는 主理·主氣派의 形成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그 韓國的 獨自性을 인정케 하는 증거이다.

退溪 李滉과 高峯 奇大辯, 栗谷 李珥와 牛溪 成渾 사이에서 특히 倫辯을 치열히 행한 四七論은 「四端 理之發, 七情 氣之發」 또는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 및 「氣發理乘一途」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四七論의 意義는 論辯의 核이었던 「理氣」의 意味에서 찾아진다. 四端에 대한 해석으로서 「理의 發」을 말하는 것은 우선 仁·義·禮·智와 같은 善한 本性이 인간의 마음(心)에 「理」로 本具되었음을, (즉 程朱의 性即理의 입장에서) 전제하고 그 本具된 本性의 自發性으로 해서 인간이 自律적으로 「五倫」을 실천할 수 있음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自律적으로 五倫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하여, 靈長으로서의 人間의 道德的 權威를 確保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孟子가 제시한 善行 可能性의 論據를 理氣說로 해석하면서, 그것에 더욱 必然性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四七論이다. 이른바 存在와 當爲를 철저히 一致視하는 방향에서 倫理를 理氣論의으로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점은 퇴계 등의 성리학자들이 「性即理」를 믿을 뿐 아니라, 珥理의 의미를 「所以然」인 동시에 「所當然」의 의미까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데서 더욱 분명하여 진다. 그리고 五倫의 순수한 倫理뿐만

아니라 政治體系이기도 한 당시였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또 心性說의 形而上學의 도구를 이용한 당시 體制合理化의 뜻을 지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體制合理化에 의한 社會安定화가 四七論의 이면에 깔린 歷史·社會的 意義이기도 하다.

18 세기의 人物性論 즉 人物性同異論은 원래 遂庵 權尙夏의 門人 사이에서 발단된 것이다. 그 문인중 특히 巍庵 李柬과 南塘 韓元震 사이에서 본격화한 論辯이다. 문제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人性과 物性이 같은가 다른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 경우의 「性」은 물론 本性을 의미한다. 巍庵에 의하면, 本性은 五常(仁義礼智信)으로 말하여지지만 根本적으로는 宇宙의 근원인 「太極」으로서의 理(性即理)이므로 모든 사물이 다 太極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상 人性과 物性は 서로 같다는 것이다. 반면 南塘에 의하면, 性は 다 氣質로해서 있게된 것, 즉 理가 氣가운데 있게된 뒤의 이 특이므로, 인간에만 있을 뿐 금수에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人性과 物性は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양측 주장의 이면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다같이 인간의 本性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그것이다. 同論에서는 그 本性을 先天的으로 本具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本性의 절대화를 노린다. 반면 異論에서는 그 本性을 後天的인 것, 특히 氣質의 다름에 따라 달리 있음을 주장하여 動物性으로부터의 보호를 노리는 식의 本性 존중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이 論辯은 本性尊重의 의도를 단지 理氣의 입장을 달리 함으로써 서로 다른 주장으로 나타낸 이외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性理學이 특히 17세기 이후에

는 禮學에 의거하여 거의 敎條적으로 因襲化하였음을 감안한다면, 人物性論의 發想은 그 禮學의 風土를 四七論등의 人性論만으로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을 느낀 나머지 宇宙論의 次元으로 擴大 深化하여 마련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살핀다면 한국의 性理學은 주로 程朱의 性理學을 우리 生活條件에 맞게 主體的으로 충실히 應用해 온 것임은 물론, 우리의 必要에 의해 그것을 더욱 研究 發展시켜 온 것이다. 그 출발은 비록 程朱에 의한 것이지만, 實踐에 의한 應用이나 理論의 研究에 있어서는 중국적으로 程朱의 水準 이상으로 발전시킨 것임을 틀림없다.

四. 現代의 評價의 問題

우리는 이제 性理學의 倫理思想과 韓國性理學의 倫理的 特徵이 지니는 現代의 意義가 고려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일정한 現代의 意義를 쫓아보면, 물론 現代가 어떤 것인지 그 特徵으로서 諸樣相이 일단 把握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論하는 意義가 결국 繼承을 위한 評價이고 보면 繼承의 前提으로서의 現代의 樣相 내지 條件이 어떤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現代에 대한 考察을 특별히 행할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살핀 性理學의 倫理思想의 特徵을 繼承하면 어떻게든가 하는 假定을 앞세우면서, 그 假定에 관련되는 범위내의 現代를 對比的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려 한다. 따라서 性

理學의 倫理思想 繼承問題와 直接開聯이 없는 범위의 現代에 대한 不必要한 考察은 미리 피하는 方法을 擇하고자 한다.

論者의 판단으로는 이상의 考察에 의거하여 「韓國性理學을 포함한 性理學 倫理思想의 特徵」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로 要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첫째, 本原儒學의 일부를 繼承하고 있는 特性으로 해서, 성리학은 家族倫理 중심의 「五倫體系」를 그대로 固守한다.

② 둘째, 성리학은 道學的 傾向이 농후 해질수록 價值絶對主義의 思考를 가진다.

③ 셋째, 全體主義的 성향이 짙다.

④ 넷째, 性情論的 倫理를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存在와 當爲를 一致視한다.

⑤ 다섯째, 人性尊重的 精神이 매우 높다.

이 다섯가지를 性理學 倫理思想의 特徵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나아가 現代狀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問題이다.

① 첫째, 성리학이 家族倫理 中心의 「五倫體系」를 고수한다는 점부터 검토하여야겠다. 이 점은 바로 성리학이 역시 漢文 文化圈의 中世的 前近代의 倫理思想의 限界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性理學은 前近代의 「孝」「忠」을 중심적 倫理綱領으로 採擇함으로써, 本原儒學과 마찬가지로 血緣(氏族)共同體社會를 뒷받침하는 倫理思想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自由革命 産業革命 이후 現代는 開放的 利益共同體의 社會이다. 現代의 이점을 想起한다면, 五倫的 倫理思想은 利益共同體 社會의 폐단을 강구하는 意識 속에서 再考될 수 있다. 물론 그 再考는 단순한 反復的 답습이

아닌 現代的 再解釋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仁을 단순히 이기적 내지 가족적인 孝로 답습하기 보다 人間愛의 情이라는 뜻에 입각하여 現代的으로 解釋해야 할 것이다.

② 둘째, 道學的 傾向이 농후해질수록 性理學은 「價值絶對主義」의 思考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礼學風土를 지배한 名分論的 思考와 짝하는 것이다. 그리고 理實在視의 思考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이기도 하다. 名分에 따라 行爲하다가 名分에 목숨까지 거는 態度는 그 價值가 올바른 限 高貴한 것임에 틀림 없다. 特히 現代가 功利主義的 打算에 기초한 價值相對主義의 思潮가 지배적임을 想起한다면 이 점 또한 新중한 再考를 必要로 한다고 볼 수 있다.

義理의 當否를 고려치 않는 지나친 物欲 일변도의 利己主義가 궁극적으로 自己破滅뿐 아니라 社會混亂을 야기함에 유의한다면, 禁欲的인 克己로 義理를 좇으려는 태도는 特히 現代社會秩序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 경우 問題는 그 名分的 價値의 根據가 어떠한가에 있을 것이다. 근거가 박약한 名分이 礼義 道德의 이틈을 하고 강요될 때에는 부질없이 공허한 形式主義에 빠지는 弱點 또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③ 셋째, 全體主義的 성향이 짙다는 점이다. 이것은 本原儒學의 「天人合一」思考가 성리학에서 物我一體觀 存天理論 合礼論 등의 형식으로 계승되면서 현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天人合一의 경우에 한정된 全體主義 성향은 곧 安身立命과 같은 幸福 또는 일종의 家族的 自足感의 획득방법과 통한다. (전술한 價值志向과도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고, 더 소급하면 家族倫理

意識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은 論外로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近代 이후 現代의 思潮가 自由 平等의 理念에 입각한 個人主義를 당연시하는 것이고 보면, 이 또한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現代에 個人主義가 전전한 方向을 잃고 한낱 不安하고 孤獨한 存在者로서의 疎外者의 야기 폐단을 빚는 경우, 性理學의 全體主義 性向은 다시 一考의 意義를 지닐 것이다. 또 近代 이후에 급격히 삭튼 自然과의 二分 對立意識이 인간 삶의 터전인 自然을 輕視하고 自然破壞의 풍조까지 낳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삶의 터전 보호라는 점에서 성리학의 天人合一의 自然調和思想은 현대에 계승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④ 넷째, 性情論의 倫理를 말함으로써 이른바 存在와 當爲를 一致視하는 점. 이 점은 性理學뿐만 아니라 東洋哲學 全般의 特徵이다. 또 現代思想 중에도 이러한 思考가 일부에 없지 않다. 그러나 性理學 特히 朝鮮朝의 性理學에서와 같이 이것을 강조 역설하면서, 그 근거를 깨고자 한 例도 흔치 않다. 性理學의 이 傾向은 앞서 살핀대로 倫理的 行爲의 必然性을 제시함으로써 社會秩序의 수립과 安定을 도모하는 同時에 倫理行爲가 가능한 道德的 人間으로서의 權威를 確立하려는데 本意가 있다. 따라서 倫理思想의 混亂期라면, 現代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이 意圖는 살필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方面의 性理學 理論은 參考資料가 될 만한 것이다.

⑤ 다섯째, 人間尊重的 精神이 드높은 점. 원래 孟子의 思想軌道를 따르면 人性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孟子가 말한 人性은 앞서 보았듯이 倫理行爲로 드러나는 人間 固有의

善性으로서, 人間을 動物과 구별시켜주는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韓國性理學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四七論과 人物性論을 통해 孟子의 이人性을 추구했으므로, 人性尊重的 경향이 그 어느 나라의 性理學보다도 투철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人性을 動物과의 구별을 가능케하는 人間 固有의 善性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理性的 能力의 소유로 생각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때의 人性尊重要란 곧 理性信賴에 해당한다. 程朱系의 성리학이 名分論的 合理主義의 경향을 띠는 연유도 사실 이러한 점에 있다. 한편 理性信賴에 기초한 合理的思考의 경향은 또한 近代 現代思想의 特徵이기도 하다. 근대 이후의 數學化 科學化 技能化의 추세가 그 좋은 증거이다. 현대의 科學, 技術文明은 분명히 理性信賴로부터 導出된 성과이다. 따라서 性理學의 人性尊重的 傾向은 現代精神과 통한다고 일단 볼 수 있다.

그러나 兩者사이의 差異 역시 간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現代의 理性尊重的 경향은 다분히 數學化 科學化의 方向인 客觀知의 方向으로 偏向한 것이다. 그에 반해 性理學의 人性尊重的 경향은 다분히 倫理的 主體的 實踐知의 方向으로 偏向한 것이다. 이 差異로 해서 現代는 産業化 大衆化 能率化를 이루었어도 人性疎外 현상의 고민을 안고 있다.

반면, 性理學은 文明의 開發에는 등한했어도 人本 人尊精神의 覺醒에는 어느 사상 못지 않았다. 그러므로 人本 人尊志向의 새로운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熱意가 증가하게 되면, 性理學의 人性尊重的 경향은 다시 빛을 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